

개 회 사

존경하는 직할교구 종회의원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행과 포교 그리고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 하시는 교구 종회의원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총무원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잊지는 않았는지
나름 반성도 해봅니다.

제 33대 집행부는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고 종도들의 뜻을 모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를 발원으로 삼았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정신은 출가와 재가, 교구와 문중, 타종교 및 사회의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수행 종풍선양과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의 3대 종무 기조를 정하고 11대 핵심과제와 25개

주요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저와 집행부는 이런 발원을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포교가 중요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의 9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각 분야의 핵심 역량은 모두 수도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종단은 그간 수도권 포교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도권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직할교구 인사교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효율적인 주지인사를 통하여 종도들의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교,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찰운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찰의 지역 사회내 위상을 강화하여 지역포교의 밑바탕을 세워야 합니다. 포교의 현장에 계신 교구총회의원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종정 예하와 원로의원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직할교구장과 총무원장의 책무와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2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